

장 칼뱅(Jean Calvin)의 교회론

-교회의 두 표지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이 창 훈

장 칼뱅(Jean Calvin)의 교회론

-교회의 두 표지를 중심으로-

지도박경수 교수

이 논문을 목회전문대학원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창 훈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2007년 2월

이창훈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박 경 수 교수 _____인

부심: 김 인 수 교수 _____인

부심: 서 원 모 교수 _____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7년 2월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 박경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논문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심으로 지도해 주신 김인수 교수님과 서원모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온 아내 이현숙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건강하고 밝게 잘 성장하고 있는 두 아들 우림과 우빈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목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원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교회성장위주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자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아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참다운 말씀과 성례전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필자의 비전이 있다면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장위주의 목회가 아닌 건강위주의 목회를 비전으로 삼고 교회의 두 표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의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꿈꾸며 교회론의 한 획을 그었던 칼뱅의 뜻이 이 논문에 담았다는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끝으로 이 논문을 완성하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2월

이 창 훈

목 차

I. 서론	
A.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 말씀과 성례	6
III. 말씀	
A. 말씀이란	10
1. 말씀에 대하여	10
2.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20
3. 율법과 복음	23
B. 말씀 선포와 칼뱅의 설교	29
IV. 성례전	
A. 성례전이란	34
1. 성례전에 대하여	34
2. 성례전과 교회	39
3. 성례전과 예수 그리스도	40
B. 세례란	42
1. 세례에 대하여	42
2. 유아세례에 대하여	48

C. 성만찬이란 -----	51
1. 성만찬에 대하여-----	51
2. 칼뱅의 성만찬 이론의 특징 -----	62
V. 결론	
A. 요약 -----	64
B. 제언 -----	68
참고도서 -----	74

I. 서론

A.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칼뱅은 그의 사상과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욕을 가지고, 당시 교회에 접목시켰던 사람이었다. 그 결과 자기 시대에는 물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형성자로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칼뱅은 독특한 교회론적인 생각을 현실화한 사람으로 당시 유럽의 개혁교회 안에 칼뱅의 영향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일반 사회생활에까지 미쳤다. 그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시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해왔다는 것을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또한 그는 교회의 갱신을 외쳤고 그의 목회현장에서 새로워지기를 거듭 시도해 왔었다. 그러면서 그의 불멸의 작품인 「기독교강요」를 출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칼뱅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질서와 전통을 존중했던 사람이었다. 「기독교강요」를 볼 때 칼뱅은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의 변호자였지 어떤 혁명적인 것에 열광하는 듯한 사상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다.¹⁾

필자는 요즘 목회현장을 보면서 참다운 교회 상에 대해 많은 고민에 잠긴다. 어떤 것이 교회다운 모습일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을 이어 받은 교회는 어떻게 변모해 갔을까? 그리고 어떤 몸부림이 있었을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해 보게 된다. 세상

1)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옮김, 『칼빈의 교회관』 (서울: 풍만 출판사, 1985), 45쪽.

의 삶의 구조와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정착되어 버린 이때에 교회를 깨우고 교회가 바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충격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 속에 종교 개혁자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상과 신학을 제 정리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특별히 칼뱅의 교회론을 연구하게 되었다.

칼뱅은 제네바시를 중심으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설교와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던 개혁자였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하고 바른 삶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세상보다 더딜지라도 패러다임과 복음 제시 및 목회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변하더라도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칼뱅은 교회의 두 가지 표지, 즉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강조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순수한 복음이어야 한다. 이 복음에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의 모든 곳에 해답을 던져 줄 정도로 깊은 영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특별히 성례전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체험할 수 없는 교회 고유의 기능이다. 성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하며 행해지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직접 교회 공동체로 나와야 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칼뱅이 말한 교회의 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신앙은 지적인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직접 체험하며 느끼며 함께 할 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칼뱅은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표지로 보았다.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거룩함도 강조하였다.

필자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칼뱅의 교회론, 특히 두 표지를 어떻게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

로 이런 표지들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칼뱅은 먼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인 교회라는 것이다. 그 어떤 인간도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성장할 수 없듯이 인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 당시 교회에 염증을 느낀 일부 열광주의자들이 기성 교회를 배격하고 개인적 성령 체험을 역설한 것에 대항하여 칼뱅은 교회의 인도와 양육을, 신앙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는 대신, 학교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성인이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칼뱅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과 직접 상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지상적 수단을 통해서도 인간들을 가르친다고 보았다. 말을 바꾸어서 만일에 교회가 어머니로서,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건대 교회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는 이 어머니의 비유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불가분리성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다.²⁾

여기서 칼뱅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사도신조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거룩한 공회는 가시적인 교회라기보다는 불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교회를 의미한다. 공회는 풀어보면

2)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63-64쪽.

가톨릭교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톨릭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칭하지 않는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교회가 온 땅에 퍼져 있고 각 지역의 인종, 언어, 문화, 관습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상호 일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톨릭은 일치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교회가 존재함을 믿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도 그 교회에 속해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회에 대한 신앙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절실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칼뱅은 다시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온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이며 그것에 속한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상호 친교를 나누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 번째 특징,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의 교제이다.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란 그 안에 있는 각 지체를 인정하면서도 다양성 속에서 신앙의 일치를 추구한다. 바로 오늘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칼뱅은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육을 위해 제공한 어머니와 같은 지상적 수단,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하나인 교회,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 선택된 백성의 모임으로서 그 본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⁴⁾

이런 칼뱅의 교회관을 바탕으로 특별히 그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두 가지 표지인 말씀과 성례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목회 일선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 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칼뱅의 교회론 가운데에서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3)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신학해설』, 364쪽.

4) 위의 책, 365쪽.

성례에 대한 연구로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왜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두 표지로 보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러면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일에 그의 깊은 신학을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성례전에 대한 칼뱅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 연구하겠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로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로, 말씀에 대한 그의 신학적 기반과 사상은 I, II에서, 교회론에서 성례론은 IV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의 설교성향과 방향성, 설교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식할 것이며,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례전을 왜 소홀히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례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칼뱅이 말하는 교회의 두 가지 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일선에서 적용시키는 도전을 삼도록 하겠다.

II.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 말씀과 성례

칼뱅은 교회는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신앙고백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교회를 믿으며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신앙은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같은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만 교회는 단지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칼뱅만의 견해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의 요리문답에도 쓰여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디서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느냐이다. 종교개혁 당시로 말하면 교회가 도대체 존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존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나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특징에 관한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Confessio Augustana*)는 제7장과 8장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루터는 1530년에 출판한 책 “공의회와 교회들”(*Von den Konziliis und Kirchen*)에서 교회론을 피력하고 있다.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때 교회를 인식할 수 있었다. 말씀과 성례를 이와 같이 볼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말씀은 언제나 성례에 선행하는 것이어서 이 둘을 진정한 의미에서 나란히 두고 생각 할 수는 없다.⁵⁾

칼뱅은 슈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의 개정판에 서명을 하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만 참 교회가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인간의 활동이나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해서 참교회가 성립되는 것인지였다. 다시 말하면 설교와 성례는 둘 다 인간의 행위이지만 이 행위는 제정된 요소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말씀이나 성례 그 어느 것도 인간

5)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58쪽.

행위의 결과로 간주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칼뱅은 말씀과 성례가 교회를 인식하게 해 주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인간이 하는 일이나 인간의 존재를 통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밝혀야 할 문제는 인간의 또 하나의 다른 행위가 제정된 것으로 그리고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인가였다. 칼뱅은 예를 들면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어떠한 제3의 징표를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⁶⁾

칼뱅은 루터와 멜랑히톤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 인정한 것처럼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데 객관적 표지 두 가지를 설정했다. 말씀과 성례가 바로 그것이다. 칼뱅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거행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⁷⁾ 칼뱅은 “말씀과 성례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요소이며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⁸⁾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서 교회를 자칭한다면 우리는 반대 방면에 대해 경솔과 교만을 피해야 되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세밀한 경계심으로 이런 거짓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도덕적인 결함이나 병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사역이 존재하기만 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⁹⁾

칼뱅은 주요 교리나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승인해야 할 신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합법적인 제도를

6)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59쪽.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IV. 1. 9.

8) 박경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만찬: 칼뱅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교회와 신학』 제62호 (2005 가을), 44쪽.

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 10.

폐하거나 허물지 않는 한, 사소한 잘못들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한다.¹⁰⁾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속에 거짓이 스며들거나 필수 교리의 근간이 붕괴되고 성례가 파괴된다면 목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듯이 교회는 즉시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신자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맡기도록 명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교훈이 제거되었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교회를 지탱하는 기독교의 요강이 무너지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 라고 한다면 기만과 허위가 지배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였다.¹¹⁾

그리스도는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명령하시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수단들은 결코 공허하거나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례가 시행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는 살아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가 계신 곳에는 그의 백성도 거기 있게 된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이와 같은 증거는 비록 거기에 위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 곧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은 보다 넓은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참된 교회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례를 자주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씀과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주로 높이 들림을 받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¹²⁾ 칼뱅은 말씀과 성례가 분명히 있다면 비록 목회자들에게 사소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례는 교회를 교회이게 하는 참된 표지였

1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2. 1.

11)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247쪽.

12) 위의 책, 248쪽.

다.¹³⁾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명 말씀은 성령의 조명 하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지만 이 말씀이 삶과 깊은 연관이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낳게 된다. 혹자는 교회를 단순히 성경을 가리키는 학교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까지 했다. 이것을 보면 칼뱅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표지 가운데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얼마만큼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 한국 교회는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성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식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례가 지니는 중요성이 쉽게 무시되며 심지어 성례를 거행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오후나 밤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성만찬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과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자취를 감춰 버린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칼뱅의 참된 교회의 표지인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더욱 생기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3) 박경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만찬: 칼뱅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45쪽.

Ⅲ. 말씀

A. 말씀이란

1. 말씀에 대하여

칼뱅에게 있어서 기록된 말씀이 루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네바에서 그렇게나 많은 설교를 해야 했던 칼뱅의 경우 성령의 조명과 감화에 의한 설교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칼뱅은 항상 기록된 말씀에 관하여 논할 때 성령의 내적 증거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位格: person)과 사역(work)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¹⁴⁾ 그렇기 때문에 칼뱅의 신학은 철학적인 사변(思辨)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계시(啓示)속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며 성경의 증거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교의 집합체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칼뱅은 말씀의 신학자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강요」의 시작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중 참되고 견실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 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¹⁵⁾ 또한 자신을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인간

14)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4), 296쪽.

1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 1. 1.

은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 등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신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¹⁶⁾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첫째, 경건이 하나님을 아는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써 오는 것이다.¹⁷⁾ 둘째, 신뢰와 경외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¹⁸⁾ 칼뱅은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신인식의 문제를 다루었다.¹⁹⁾ 그는 아무도 무지(無知)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었지만 이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키우고 있는 사람은 백사람 가운데 겨우 한두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이 지식은 무지와 악의로 질식되거나 부패되어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한다고 주장한다.²⁰⁾ 게다가 위선자들은 전 생애를 바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을 신뢰하며 마침내 그들 스스로 거대한 오류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을 우매한 죄악으로 질식시켜 버리게 한다. 그러나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결코 근절될 수 없지만 이

1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 1. 2.

17) 위의 책, I. 2. 1.

18) 위의 책, I. 2. 2.

19) 위의 책, I. 3. 1.

20) 위의 책, I. 4. 1.

씨앗은 매우 부패하여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²¹⁾

칼뱅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이 행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계시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기에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광대한 이 우주의 구조를 그 광채의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는 잠시라고 바라볼 수 없다고 하였다.²²⁾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증거 되어 온 인류에게 제시되었고 그러므로 인간은 신적 지혜의 최상의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이다.²³⁾

하나님이 인류 사회를 다스릴 때 섭리를 따라 인자와 은혜를 베풀지만 명백하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경건한 자들에게는 관대함을, 악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엄격함을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죄한 자의 보호자이며 변호자이고 선한 자들을 축복하여 그들의 생활이 번창 하게 하며 그들의 궁핍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며 그들의 재난에서 구하고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분임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²⁴⁾

칼뱅은 우주 속에 창조주의 영광을 설명하는 수많은 등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그것은 헛될 뿐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하여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더욱이 그는 자신에 대한 증거가

2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 4. 4.

22) 위의 책, I. 5. 1.

23) 위의 책, I. 5. 2-4.

24) 위의 책, I. 5. 7.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온갖 풍부한 인자함으로 인간을 이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일을 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²⁵⁾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⁶⁾ 그래서 진리가 계속적인 교훈을 주고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엮으실 것을 결심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인데 우리들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 하고자 하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나온다고 하였다.²⁷⁾

칼뱅은 말씀을 인간 자신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이해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고 계시인 말씀인 성경은 교회의 교리인 규범이며 척도였다. 설교는 이 사건 자체와의 간접적인 동일성 안에서 이 사건의 암시, 모상, 반향, 증언, 응답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자기 자신을 관찰시키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조명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⁸⁾

칼뱅은 말씀, 즉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는 곧 말씀의 권위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²⁹⁾

2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 5. 14.

26) 위의 책, I. 6. 4

27) 위의 책, I. 6. 2.

28) Jü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외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231쪽.

29) 김의환, “칼빈의 성경관,” 『신학지남』 제39권 1집 (1971. 3): 20쪽.

우리는 매일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속하며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찬동에 좌우되는 것은 거짓된 견해라고 말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건의 의무로서 교회는 조금도 주저 없이 성경을 존경하는 것이다.³⁰⁾

칼뱅에게 있어서 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Deus loquens*)이다. 단순히 침묵의 하나님이나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나 어떤 추상적 전제로서의 하나님은 아니었다. 즉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경험적 논증 등 어떤 논증과 이론에 의해서 규명되는 하나님이지 이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 섭리와 종말을 향한 역사를 펼치셨다.³¹⁾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는 두 가지 지식 즉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도달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차원의 신인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드러냄과 은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한성과 육체의 능력에 적합한 형태로 상징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하셨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형편에 맞추신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폐하심을 굳이 추측과 망상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교만이다. 계시 수단으로서의 표시나 상징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불타는 나무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³²⁾

3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 7. 1.

3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96-97쪽.

32) 위의 책, 297쪽.

칼뱅은 구약과 신약을 연속성에서 이해하고 있다. 구약에서 인간에게 계시를 전해준 중개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삼위일체의 제2격인 성자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할 때 홍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때,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때, 가장 강한 민족들을 굴복시킬 때, 그들을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바꿀 때, 이 모든 것들을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셨다. 칼뱅은 구약에 나오는 대 천사는 바로 성자였으며 교회의 정통적인 교사들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현명하게 해석해 왔으며 그는 그 때 이미 중보자의 직임을 성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³³⁾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후 그 백성들의 여정에 항상 함께한 그 천사는 가끔 야웨라 불린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 때에 이미 그가 머리인 교회의 인도자였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신약에서의 계시에 대해 알아보면 구약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의 중개자가 되었던 성자는 신약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그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었다.³⁴⁾

신약에서의 예수의 인성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동시에 자기은폐인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비하는 베일과 같은 것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그의 신적인 위엄이 은폐되어 있다고 하였다. 칼뱅은 이어서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는 신성을 감추고 있으나 여전히 신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며 부활로 인해서 신성의 베일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계시하였다. 세례와 주의 만찬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에 의하여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성령은 족장들, 예언자들과 예수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³⁵⁾

3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 10. 10.

34) 위의 책, I .6. 4.

35) 위의 책, I. 7. 4.

신약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약 25~30년 어간 기록이 아닌 구전 (연속적 생명력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말씀설교와 가르침 및 증거가 그 주된 부분이지만)으로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 할 때 구약과 신약이 예언자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 된 말씀이라는 사실은 더욱 그 타당성이 있었다. 칼뱅은 말하기를 신, 구약 계시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은 그 실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점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일치하는 하지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칼뱅은 신, 구약의 실체는 하나이지만 신약은 구약보다 더 분명하고 범위가 넓으며 계약의 역사가 발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서 성경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본 최초의 저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³⁶⁾

교회는 설교된 말씀을 근거로 설교한다. 무엇보다 설교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다. 그래서 칼뱅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 속에 계시는 스승,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설교말씀이 들린다. 확실히 성령이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야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³⁷⁾

우주만물, 즉 하늘과 땅의 훌륭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전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께서 설교의 어리석음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신앙을 말하였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인데 성령을 통한 설교에서 오며 믿음은 듣는데서 온다.(롬 10:17) 칼뱅은 고린도전서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3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98쪽.

3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2. 20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³⁸⁾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 설교말씀의 중심내용은 구약에 어느 정도 나타난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복음 메시지로 이것이 신약에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물론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도 설교해야 하나, 보다 중심적인 메시지는 복음이어야 하였다. 여기에 대해 칼뱅은 복음 설교를 듣고 사죄를 얻기에 죄인이 사탄의 굴레와 죄의 멍에에서 해방되고 모든 악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고 하였다.³⁹⁾

칼뱅에게 있어서 교회의 설교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 루터를 비롯해서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있어서 설교말씀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이 설교말씀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본원적으로 족장, 예언자,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하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외치는 것이다. 칼뱅은 교회의 표지와 목사의 직무를 말할 때에 역시 말씀의 설교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결국 세례와 성찬의 핵심도 성령의 조명을 동반하는 말씀설교에 있다고 하였다. 아니 성례란 보이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설교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받아 은혜와 신앙으로 구원 얻는 신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확신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⁰⁾

칼뱅의 신학은 철저히 성경의 증거 위에 서 있다. 그의 신학의 모든 교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증거가 다 참되다고 확신할 때 당위성이 나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었다.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말씀을 듣고 구원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 저자임을 의심 없이 우리에게 설득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결코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3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6. 1.

39) 위의 책, III. 3. 1.

40)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99쪽

서 영감 되었고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것을 충실하게 기록하였으며 그들의 글이 온전히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뱅은 말하기를 성경은 존경 받기에 충분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증명이나 논증아래 놓이지 않는, 자기 신뢰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며 또 흰 사물들과 검은 사물들이 그것들의 차이를 당장 보여주듯이 자기를 알릴 그 무엇, 즉 명백하고 틀림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불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었다. 이성적인 논증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설득에 의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최초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되었는데 기록될 때에도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았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 말씀의 의미에 와 닿은 기독교인들로서 사도들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 칼뱅은 성경을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도그마(dogma)역시 하늘에서 온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칼뱅은 루터의 경우처럼 복음 중심적 성경 이해를 하면서도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였던 것이다.⁴¹⁾

칼뱅은 성경(기록된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 혹은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다고 하였다. 이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왔으며 성령을 통해서 말해졌던 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므로 그 권위가 인간적인 것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경의 메시지가 파악되려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본래 말씀이 외쳐질 때 역사하신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4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99쪽.

침투해 들어오셔야 기록된 말씀의 메시지가 인식되고 경험된다. 칼뱅은 성령의 증거가 모든 이성의 증거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합한 증거자인 것처럼,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와 닿으려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도장이 찍혀야 한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숙이 파고 들어와야 본래 예언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적어도 칼뱅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 능력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간적 능력의 소산이요 문화영역의 소산인 문학적 비평 그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증명 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이다. 칼뱅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 성령의 내적 증거를 거듭 강조하면서 성경적 복음 메시지 파악에 있어서 일반 해석학적 원리들이 결코 효과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인 것이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긴밀하다. 사실상 종교개혁당시 좌경화 내지는 과격주의적 종교개혁자들(예, 토마스 뮌쩌)은 성경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인간 밖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안에 내재하는 내적인 말씀만을 주장하였으나 칼뱅은 외적인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를 잘 연결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날조할 수 없는 것이다.

칼뱅은, 열광주의자들은 외적인 말씀(설교와 성경)은 무시하고 인간 안에 있는 신적 불꽃에 의하여 하늘로 날아가고 만다고 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도구로 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일으키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설교와 성경 모두가 성령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로고스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에 유비된다.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의 진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4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 7. 4.

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⁴³⁾

2.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위격과 사역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구원의 활동을 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화해하고 복종하고 구속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분에 관해 말하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적 직책과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말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계시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⁴⁴⁾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연달아 보내시며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고 중요한 교리를 알려주셨지만 경건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메시아가 와야만 이해의 완전한 광명이 있으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가득했다. 이런 까닭에 사도는 복음진리의 완전성을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공통된 임무는 교회가 기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그 기대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 민족의 이산 기간에 신자들은 정상적인 혜택을 빼앗겼다고 탄식하는 것이었다.⁴⁵⁾

칼뱅은 누가복음 4장 18절(사 61:1~2) 말씀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관련하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는 나를

43)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302쪽.

44) 위의 책, 303쪽.

4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15. 1.

기름 부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마 3:17)'"고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월한 각별한 특권으로 예수를 높이셨던 것이다.⁴⁶⁾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격과 모든 사업 곧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재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성육하셨고 이 사람의 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것이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분이 되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거리를 연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그럼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주(*the Reconciler*)로서 혹은 중보자(*the Mediator*)로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이다. 바로 이 분이 우리의 말씀이신 것이다. 이 말씀이 없이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은 공허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이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다른 둘 없이 이해될 수 없는 삼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⁴⁸⁾

예수 그리스도는 신, 구약 성경의 주제로 칼뱅은 그의 요한복음 5:39 주석에서 그리스도는 성경 자체가 자기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신다고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죽은 문자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의 우매함을 고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성경에서 생명을 찾지 않았기 때문으로 성경

4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15. 2.

47) 위의 책, II. 12. 1.

4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304쪽.

이 주어진 목적은 이 생명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더욱이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즉 우리는 성경 이외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옳게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성경을 읽는 주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⁴⁹⁾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저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그리스도 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요, 구약의 참뜻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 구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성경 전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다. 즉 성경이 성경의 유일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 지워지지 않는다면 모든 성경이 몹시 곡해된다고 하였다.⁵⁰⁾

구약에서 하나님은 희생제와 화목제 등에 의하여 선민의 아버지로 드러나 있고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구약은 장차 신약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 요한복음 5:46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말한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약의 그것보다 더 풍성하다. 사실 구약에서 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이 이것을 갈망했으나 아직 도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요한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요8:56)고 말한다. 진실로 희미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옷을 벗은 알몸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으니 칼뱅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선 무엇을 찾아야 하고 성경의 내용을 어떤 목표에 맞추어야 하나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목표요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

4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304쪽.

50) 위의 책, 305쪽.

도 이외에 다른 목표를 열망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이 목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⁵¹⁾

칼뱅은 그의 설교집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목표는 신앙이 어야 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려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곳에서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하며 그 목표를 상실할 때 모든 수고와 노고는 헛것이 되며 결국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 지혜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⁵²⁾ 분명한 것은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나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 율법과 복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라고 칼뱅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⁵³⁾ 택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포함한 아름다운 것이다.⁵⁴⁾ 하지만 율법을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없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율법을 완수할 수 없게 됨으로 우리를 절망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 그렇다고 율법의 약속이 무

5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306쪽.

52) 위의 책, 306쪽

5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7. 1.

54) 위의 책, II. 7. 2.

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며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 많음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도록 인도한다. 율법은 엄격해서 우리의 모든 자기기만을 빼앗는다.⁵⁵⁾ 율법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과 같이 우리를 고발함으로써 은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제하고 신자들을 훈계해서 선행을 촉구하도록 한다. 그럼으로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두 돌판인 율법을 버리려고 한다. 율법은 죄인들 사이에서는 죽음을 만들어 내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는 더 좋고 훌륭한 이용법이 있다는 것이다.⁵⁶⁾

특히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은 우리에게 회미했던 것을 더욱 분명하게 증언해 주며 무관심한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의 지성과 기억에 더욱 강력한 감명을 주려고 성문화 하신 것이다.⁵⁷⁾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자비하시며, 절대로 성결하시며, 인자하게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도덕적 율법에서 알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엄격하며 약속과 위협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⁵⁸⁾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른 이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율법의 전체 목적은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는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의 목적에는 사람이 성결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데는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중심은 사랑으로 첫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는 것이고 둘째, 첫째에서 흘러나오기 마련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은 양심과 진실한 믿음, 곧 진정한 경건에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⁵⁹⁾ 이

5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7. 6.

56) 위의 책, II. 7. 13.

57) 위의 책, II. 8. 2.

58) 위의 책, II. 8. 3-4.

린 율법의 정신과 뜻을 이어 그리스도는 이제 복음 안에서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어진다. 구약의 율법은 경건자들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기대 가운데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리스도가 강림시에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광명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⁶⁰⁾

복음은 계시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오류들이 있는데, 세르베투스의 악마적인 망상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마치 약속들이 율법과 동시에 끝나버린 것처럼 약속들을 전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모든 율법의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구원의 어떤 부분은 아직 소망 가운데 남아 있고(골 3:3; 롬 8:24; 요일 3:2) 우리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며(딤후 4:8), 아직 그리스도의 사도 노릇을 하는 기간에 있는 것이어서(딤후 1:1), 옛날에 거룩한 분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약속을 받은 것이니(고후 7:1, 6:16-18) 곧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상태(엡 1:13)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엡 3:17) 주와 따로 거하기도 하는 상태가 되어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후 5:5-7; 히 11:1) 즉 율법이 예표로 미리 암시하는 것을 복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⁶¹⁾

칼뱅은 율법과 복음과의 반대 점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와 공로와 복음의 거저 전가해 주시는 의와의 대립은 존재하지만 이를 잘못 비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을 확인하고 실현했으며 그림자에게 실체를 주어 그것을 완성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표현의 선명도의 관점은 율법보다 복음에서 다 밝히 드러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은혜가 너무도

5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8. 51

60) 위의 책, II. 9. 1.

61) 위의 책, II. 9. 3.

풍성한 까닭에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에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²⁾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칼뱅은, 구약은 신약성경적인 종교의 한 계단 밑에 있는 어떤 종교 형식의 전거도 아니요 유대인의 민족 윤리 및 민족 종교의 표현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 구약이 말하는 왕과 제사장은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다. 예언자들이 보내어진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사 및 계명 자체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율법의 가르침과 제도의 목표로 지향시켰다고 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약은 겨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감추어진 신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울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을 신에게 이르게 하는 구속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는 이미 중보자였다. 모든 옛 조상들이 이 구속자에 의해서 신에게 인도되었으며 그를 통해서 은혜를 찾지 않았더라면 신에게로의 통로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한 구속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신의 마음에 용납되었다는데 기도의 기초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효능은 영원한 것이며 모든 세대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행동은 결정적이며 효능적이어서 옛 계약에 속하는 사람들의 운명도 그에게 매여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없이는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헛것이 되고 만다. 실로 계명은 이를 죽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의 실현될 근거가 되신다. 그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약속에 뿐만 아니라 계명에도 속한다. 죄 된 백성과 맺으신 신의 모든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식 될

6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9. 4.

뿐이다. 그 안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全) 구약성경은 그리스도를 추구한다.⁶³⁾

신약은 동일한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나 신의 아들의 성육신에 의해서 그것은 구약성경과 대조되었다. 신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구약은 성육신하실 분을 선포하는 까닭에 칼뱅은 신구약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하기를 신약은 채색된 그림이요, 구약은 암영(暗影)이라고 말한다. 칼뱅은 그의 강요에서 신, 구약 사이에 확립이 되어야 할 차이점을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열거한다. 그러나 신, 구약은 모두 동일한 말씀을 증거 한다. 양자가 다 같은 한편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한 편은 저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러니 칼뱅이 본 신약과 구약 사이의 구별이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신약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포했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이 대망에서만 가졌던 것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서 그의 약속에 잠겨지는 것이라는 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 해도 우리는 아직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는 몸이다.⁶⁴⁾

구약의 언약은 우리와의 언약에서 실질과 실상이 같아서 사실상 둘이 하나이고 같은 것이지만 다만 처리방법이 다르다. 즉 그리스도 강림 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그리스도 출현 후에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였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목표인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신탁과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선택을 보증하시며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을 주에게 묶어 놓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63)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73), 102쪽.

64) 위의 책, 101쪽.

유지되었다. 셋째는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다. 말씀을 맡기심과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선택을 보증하시며 확인하였던 것이다.⁶⁵⁾

칼뱅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다.⁶⁶⁾ 첫째,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다.⁶⁷⁾ 둘째, 구약시대에는 형상과 의식으로 진상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예표 했다. 구약은 실재(實在)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였을 뿐이고 신약은 진상의 실체 그 자체를 현재 있는 것으로 계시한다는 것이다.⁶⁸⁾ 셋째,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라는 것이다.⁶⁹⁾ 넷째, 구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을 종살이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다섯째, 구약은 한 민족에게 신약은 모든 민족에게 관계한다는 것이다.⁷⁰⁾ 칼뱅은 구약을 신약에 넣어서 읽거나 신약을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읽는 등 신구약의 관계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 그는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바로 구약 안에서 약속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었다. 구약이 말하는 경건한 자의 구속은 우리의 구속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도 교회의 동일한 몸이 문제인 것이다. 새 계약이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파기된 옛 계약이 신에 의해서 다시 수립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약과 구약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 된 신의 계약의 기초인 것이다.⁷¹⁾

6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 10. 2.

66) 위의 책, II. 11. 1.

67) 위의 책, II. 11. 4.

68) 위의 책, II. 11. 7.

69) 위의 책, II. 11. 9.

70) 위의 책, II. 11. 11.

71)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100쪽.

B. 말씀 선포와 칼뱅의 설교

칼뱅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와 지도에 의해 선포되는 것으로 보았다. 곧 말씀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선포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한 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성장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을 세워 하늘의 교리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였다.⁷²⁾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을 통해 말씀하였다.

칼뱅은 그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도움이나 도구 없이 스스로 하거나 혹은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도구로 삼아 그것을 하기를 더 좋아 하신다고 하면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 사역하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로 첫째,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그가 세상에서 그의 대사들로 봉사하고(고후 5:20), 그의 비밀의 뜻의 해석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우리가 그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복종할 때 겸손을 위한 가장 훌륭한 유익한 훈련이 된다. 셋째, 결속으로 어떤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생도가 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교훈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이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힘 있는 수단이라고 예견했던 끈으로 그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⁷³⁾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고귀한 은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람의 입과 혀를 성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그 음성이 그들의 입과 혀를 들리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우뢰소리로 내쫓기보다는 통역자를 통해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신 것이다.⁷⁴⁾ 그러므로 선지자가 주의 입술의 기운으로 말할 때 이것은

7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 5.

73) 위의 책, IV. 3. 1.

그리스도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으로, 그들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입술로 간주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다.

결국 칼뱅은 설교를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수단이라고 말하였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설교는 그 자체로서는 사라질 음성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 노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 주는 도구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는 가르침 또는 교의에 있으며 이 교의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인정하기를 바랐다.

칼뱅은 그리스도는 복음의 가르침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씀 선포자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양을 모으는 음성과 이리와 도둑을 물리치고 내쫓는 음성이다. 달리 표현하면 선포자는 그의 설교를 통해 첫째로, 온순한 자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대로, 둘째로, 진리의 적을 공박하고 또 반박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자랑과 고집을 혼내 주는 대로 부름을 받아야 한다.⁷⁵⁾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설교자의 말은 성령의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설교가 효력을 발휘한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의 능력은 성령에게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능력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칼뱅은 설교자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말씀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역사하시면 인간의 말은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설교자에게 분리하시면 그들에

7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 5.

75) Richard Stauffer, *Calvin et sermon*, 박건택 역, 『칼빈의 설교학』(서울: 나비, 1990), 71쪽.

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칼뱅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되지만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외적 말씀이 성령의 힘에 의해 생명이 붙어, 넘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무용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 말씀이 효과를 지니려면 성령의 역사 이외에 설교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칼뱅은 무엇보다도 먼저 학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의 좋은 사역자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뱅은 그 효력이 인간의 혀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며 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하였다.⁷⁶⁾

교회는 말씀 선포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시켜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심으로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유지되게 하신다. 성령은 선포되는 말씀에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하여 울려 퍼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듯이 외적 도움으로 주어진 교회에서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란 목사의 근본적 의무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해도 무익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의 시급한 역할이란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다.⁷⁷⁾ 칼뱅의 설교원리는 강단에 올라갈 때 설교자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그곳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되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신의 사상을 선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결코 강단에서 논해져서는 안 되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그의 어떤 설교에도 빠진 적이 없었다. 칼뱅의 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늘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사명 의식이 그

76)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62쪽.

77) 위의 책, 62쪽.

78) 이양호, “설교자 칼빈: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한 설교자, 존 칼빈,” 『그 말씀』 제63호 (1997. 10): 34쪽.

를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한 것이다.⁷⁸⁾

칼뱅의 성경해석은 전통적 주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항상 본문을 성실하게 활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주석이 아니었다. 설교에는 설교자의 기교를 더함 없이 성경의 표현으로 성경의 사상을 드러내는데 날카로운 자각과 명확한 이해, 표현력이 충동원되었다. 설교 양식은 명쾌하고 박력 있고 예리하며 꾸밈이 없으면서도 순결하고 엄격한 우아함이 있고 따스함은 없지만 열정과 힘이 있는 설교였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설교 속에 현존하심을 굳게 믿었고 설교의 내용을 심오하게 파헤쳤다.⁷⁹⁾

칼뱅은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교했고 그의 설교는 간결하면서도 단순하게 말하여 회중과 호흡을 같이하였고 다양한 많은 표현과 예화와 격언이 사용되었고 때로는 개혁자다운 거칠고도 강력한 언어들 사용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찌를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의 설교는 제네바에 2023편이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주일에 칼뱅은 신약의 말씀을 설교했고 주중에는 구약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다. 성경원어에 능통했던 그는 성경 한권 한권을 강해하며 설교해 갔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 기술의 대가로서 칼뱅만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⁸⁰⁾

칼뱅은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성경강해와 영적 감화를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그는 강해 설교가이며 즉석설교가 있었다. 그는 성경원어와 라틴어 일반지식과 성서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다. 그의 위대한 주석책은 그의 신앙과 경건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78) 정 장복 외,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509-10쪽.

79) 위의 책, 511쪽.

80) 이성룡,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복음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93), 54-63.

칼뱅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주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보았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추가된 계시를 성경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깨어나게 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실체를 보고 그 맛을 보게 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자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생명을 주는 계기로 나타내어 친히 성경을 증명해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은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해 주는 근거라는 말이다.⁸²⁾

81) John Piper, *The Legacy of Sovereign Joy*, 마영래 역,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 (서울: 좋은 씨앗, 2002), 152-53쪽.

IV. 성례전

A. 성례전이란

1. 성례전에 대하여

칼뱅의 성례론의 특징은 그가 두 성례의 공통된 성질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데에 있다고 하겠다. 칼뱅은 두 성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徵表)로 이해한다. 그리고 칼뱅은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는 세례와 성만찬을 이러한 징표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성례의 개념을 밝히고 그것을 칼뱅 자신이 왜 충실히 다루려고 하는 것인가를 설명했다. 칼뱅은 사크라멘트라는 개념이 세례와 성찬 이외의 다른 의식이 옛날부터 적용되어 온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 시대 신학자들은 성례의 개념을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옳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사크라멘트란 말의 의미를 “신앙”과 똑같이 보았다는 것이다. 본래 라틴어는 약속을 지키는 진리를 의미하는 반면에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 개념을 사람들이 진리 자체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으로 사용하였다. 칼뱅은 이와 같이 사크라멘트란 말이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바뀌게 된 점을 다루어야만 했다. 또한 그는 사크라멘트의 개념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문헌에서는 기독교식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신학에서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인정된 것이다. 칼뱅은 터툴리안(*Tertullian*)이 성례를, 특별히 세례를 병사들이 그들의 지휘관 앞에서 하는 맹세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개념은 지휘관 자신이 사병들을 자기 군대로 받아들일 때 하는 맹세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였다.⁸²⁾

82)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125-26쪽.

8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1.

칼뱅의 중심사상은 성례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인간이 이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라는 것이다. 칼뱅은 성례를 정의하기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 또 하나의 수단이며 복음 선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에게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더 간단히 정의해보면 성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로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⁴⁾ 칼뱅이 이 말로 시작한 의도는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회에 불러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개별적 혹은 독자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전파와 밀접히 연관된 방법임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⁸⁵⁾

칼뱅은 성례를 “신성한 것의 보이는 표”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형태”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의 정의가 내용을 더 분명하게 잘 설명한다고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는 너무 간단해서 모호한 데가 있고 그래서 교육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속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생기지 않도록 말을 더 많이 사용해서 내용이 더 충실한 표현을 만들기로 했다.⁸⁶⁾

여기에서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았음을 주저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는데 그의 저서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은 성례의 정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은 칼뱅의 저서 어디에나 나타나는데 정말로 칼뱅주의의 모든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명확한 설명에서 비롯되

84)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신학입문』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208쪽.

8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1.

86) François Wendel,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379쪽.

있음은 매우 분명했다.⁸⁷⁾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의 형식과 표현들은 비록 그가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것들을 강하게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루터가, 다른 한편에서는 부처가 각각 칼뱅의 주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쳤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에 관한 그들의 해석은 칼뱅으로 하여금 그 같은 입장을 취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분명한 영향과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코 독창적이지 못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⁸⁸⁾

칼뱅은 성례에 관해서 설명해 가는 동안 복음에 확고한 기반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떠나서는 성례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성례는 약속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서 약속을 확증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 약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약한 것은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지니는 신앙이라고 한다. 성례는 하나님의 확고하고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의 약한 신앙을 세우려는 데 그 뜻이었다.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하며 자체 이외에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괴어 주고 받쳐 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시며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 다니고 육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 것이다.⁸⁹⁾

87) François Wendel,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80쪽.

8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3.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은 성례에 표징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세례가 성별되고 깨끗케 하는 힘이 세례에 있게 되는 것을 확신 하였다.⁹⁰⁾ 그렇기 때문에 성례에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 선포가 필요하고 성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분명한 음성으로 선포하는 그 약속이 신자들의 손을 잡고 표징이 가리키며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였다.⁹¹⁾

칼뱅의 이러한 말속에는 얼마만큼 말씀의 역할이 성례전 안에 중요하게 작용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분명한 것은 성례전은 복음의 바탕에 이루어져야 한다. 칼뱅은 성례는 인장과 같이 가장 분명한 약속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신자의 눈으로 성례를 볼 때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명상에 의해서 성례 안에 감추어 있는 숭고한 신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다.⁹²⁾

또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확고하게 믿게 만드는 행사로 “보이는 말씀” 또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우둔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말씀에 의한 것보다 더 명백하게 확인하시기 때문이다.⁹³⁾

칼뱅은 믿음이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고유한 일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비의 보고를 알게 되고 성령의 광명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눈은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이 둔해져서 영적인 것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데 첫째는, 주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지시하시고,

9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4.

91) 위의 책, IV. 14. 4

92) 위의 책, IV. 14. 5.

93) 위의 책, IV. 14. 6.

둘째는 말씀을 성례로 확약하시고, 셋째는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례는 귀를 울리고 눈앞에 나타날 뿐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⁹⁴⁾ 그러므로 칼뱅은 성례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한 성령님께서 믿음을 증진시키는 분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칼뱅은 성례가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내적 교사인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고 말하였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성례가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먼 눈에 비치는 태양의 빛이나 막힌 귀에 울리는 음성과 같이 아무 성과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성령과 성례를 구별해서 역사하는 힘은 전자에 있고 후자에는 그 임무만을 남긴다고 하였다. 이 임무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용이 없고 빈약한 것이 되지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며 힘을 나타내실 때에는 위대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이 없으면 성례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며 이 교사의 가르침을 이미 받은 마음속에서 성례가 믿음을 강화하며 증진시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차이는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의 눈과 귀는 날 때에 듣고 보는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분량 이상의 특별한 은혜로 같은 일을 하신 것이다. 설교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성례전으로 확인하실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야만 이 말씀과 성례전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였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은 단순히 귀를 때릴 뿐이요 성례전도 다만 눈앞에 전시될 뿐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⁹⁵⁾

그러므로 칼뱅은 말하기를 성례전의 효력은 성령의 힘에 달려 있기에 성경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

9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8.

95) 위의 책, IV. 14. 9.

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례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직 성례전을 통하여 혹은 성례전과 함께 은혜가 온다. 이것은 성령이 성례전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령이 같이 하지 않는 한 성례전은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례전에 있어서 “성례전 안에 있는 교사” 인 것이다.⁹⁶⁾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은혜를 행사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례전의 모든 열매를 가능케 하신다. 만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례전은 무용한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는 말씀이 우리 귀에 헛되게 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데 머물지 않도록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 하나님의 말씀에 바치는 복종으로 향하도록 준비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성령은 이러한 외부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의 귀로부터 영혼에 전달되는 것이다.⁹⁷⁾

2. 성례전과 교회

칼뱅은 주께서 성례들을 제정하신 것은 주를 경배하는 종들이 한 믿음을 가지며 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을 한 종교로 뭉치게 하였고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표징이나 보이는 성례에 참여하게 하여 서로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미신이나 사탄이 변질시켜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상징들 곧 진정한 경건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의 그 근본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상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신성한 상징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식인 것이다. 표징은 의식이라고 말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

96)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253쪽.

9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10.

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협약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일체 말소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 편에서는 이 고백에 의해서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겠다는 의무를 하나님께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의식(예식)이라고 부르며 그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며 이러한 성례가 교회에서 항상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⁹⁸⁾

3. 성례전과 예수 그리스도

칼뱅은 성례는 주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경륜에 따라 각 시대에 맞도록 다양화되었다고 말하면서 족장시대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서의 결례와 희생과 다른 의식들이 첨가되었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성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폐지되었고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가 제정되어 현재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의 성례전이나 현대의 성례전은 모두 똑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졌는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거나 또는 형상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즉 성례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고대의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을 동안에 어렴풋이 그를 예시했고 현재의 성례는 이미 임재 하셨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것이다.⁹⁹⁾

성령은 성례전을 통하여 무슨 신비스러운 그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

9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19.

99) 위의 책, IV. 14. 20.

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준다고 하였다. 설교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성례전의 주제 혹은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이 성례전은 설교 말씀 없이 거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을 통하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육성시키고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소유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칼뱅은 성례전도 신앙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직책과 꼭 같은 직책을 수행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믿는자가 이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야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순종이 더욱 철저해진다. 성령께서는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재확인하고 더욱 확고부동하게 한 것이다.¹⁰⁰⁾

칼뱅은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직책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의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고를 제시하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원칙이기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례에 부여하신 기능으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며 확인해 주는 것이며 성령의 동반 없이는 더 이상의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특히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며 성례가 우리 사지에서 자리를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¹⁰¹⁾

칼뱅은 계속 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인간의 본성을 잘라버리는 상징성과 약속의 자녀라는 회상의 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것은 복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할례에는 믿음의 의를 알리는 표징이 된 것이다.¹⁰²⁾ 다시 말해서 그 후손을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일종의 인(印)이었다.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100)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79-80쪽

10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17.

102) 위의 책, IV. 14. 21.

확증하고 물은 씻음을, 피는 보속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말과 같이 “물과 피”(요일 5:6)로 임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성례전에서 보다 완전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¹⁰³⁾

칼뱅은 옛 율법과 새 율법의 성례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스콜라 학파의 교리는 전적으로 배척해야 한다고 하면서 옛 율법의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시할 뿐이고 새 율법의 성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현재의 실재로서 주는 것이 구별하였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성례에 있어서 은혜는 같고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이었다.¹⁰⁴⁾ 할례의 가치를 바울은 이미 폐지된 할례, 즉 옛 그림자는 버리고 실체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미 몸과 영혼에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므로 실체의 계시를 받았으며 이것은 그림자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⁰⁵⁾

B. 세례란

1. 세례에 대하여

칼뱅의 세례관은 루터와 쾰링의 세례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칼뱅이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례의 영적 내용이었다.¹⁰⁶⁾ 칼뱅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

10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22.

104) 위의 책, IV. 14. 23.

105) 위의 책, IV. 14. 24.

106)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224쪽

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이 세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와 증명이라는 것이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고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회상되거나 그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인을 친문서와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 목적의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16:16)라는 약속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다.¹⁰⁷⁾

칼뱅은 바울사도의 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엡 5:26), 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그리고 베드로의 말인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21)를 인용하여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며 구원한다거나 물 자체에 깨끗하게 하며 중생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힘이 있거나 여기에 구원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성례에서 이런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받는다고 하였다. 칼뱅은 실제로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 얻는 정결이지 결코 그 외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피를 물로 대신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⁸⁾

세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칼뱅은 세례가 신앙에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하였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씻는 표지이다. 세례는 과거의 죄만 씻겨짐이 아니라 언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일생동안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세례 받은 것을 회고하며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례는 한번 받은 것이며 지나간 것같이 생각되지만 그 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무효

10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5. 1.

108) 위의 책, IV. 15. 2.

가 되지는 않는다. 세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얻었다. 그의 순결은 영원히 풍성하고 어떤 오점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묻어 버리며 깨끗하게 씻어 버린다는 것이다.¹⁰⁹⁾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표시한다. 칼뱅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롬 6:11)

세례는 중생의 씻음과 회개함이며 이와 같이 먼저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개조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약속된다.¹¹⁰⁾ 셋째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임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축복을 나누어 갖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친교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연합과 친교의 가장 견고한 우대로서 세례를 공통분모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으로 세례를 성별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우리는 세례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세례의 고유한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¹¹¹⁾

우리의 원죄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가리키며 그 부패로 인해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다음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부른

10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5. 3

110) 위의 책, IV. 15. 5.

111) 위의 책, IV. 15. 6.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모든 부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유죄 선고를 받은 자로 인정된다. 의와 결백과 순결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아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지만 죄의 씨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저주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들의 본성은 죄의 씨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자들은 세례에 의해서 이 저주가 그들에게서 제거되었고 취소되었다는 것을 확약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 표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고 또 우리가 저야 할 죄책과 그 죄책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다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¹¹²⁾

칼뱅은 바울은 일단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접붙임을 받고 세례에 의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가르친다. 또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하였다. 세례라는 표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싶다는 소원을 공포하며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 다는 것을 증거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그에게 몸을 바치며 그의 이름에 충성을 맹세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세례 때에 한 고백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¹¹³⁾

세례는 믿음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며 강화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제정하신 분의 손에서 직접 받는 것같이 받아야 하며 믿음으로 받는 정도만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칼뱅은 백부장 고넬료의 예를 들면서 그는 세례에 의해서 사죄를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단련되었다고 하였다.

11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5. 10.

113) 위의 책, IV. 15. 12-13.

이것은 보증을 얻어 더욱 확신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세례 자체의 힘으로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면 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했겠는가 항의할 수 있겠지만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이 자각하는데 따라 얻게 되며 이것은 증거 하실 때나 혹은 이 확증하신 것을 더욱 충분하게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실 때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칼뱅은 자신이 표징과 실체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은 세례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물론 세례는 죄를 씻기는 증표일 것이다. 여기에는 믿음이 얼마큼 자각하느냐에 따라 보여주시는 것을 얻게 된다. 만일 믿음이 없으면 땅은의 증거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한다. 세례가 우리 고백의 상징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죄의 용서는 순결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증거 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함께 믿음과 사랑의 완전한 일치 속에서 화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증거 해야 할 것이다.¹¹⁴⁾

칼뱅은 성례는 집례 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재세례과는 교황 제도하에서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올바르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비판하였다. 칼뱅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하면서¹¹⁵⁾ 재세례과의 재 세례를 반대하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세례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며(마 28:19) 누가 집례하든지 세례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재 세례에 대해 대항할 강력한 이론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칼뱅은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거나 재 침례과에서 재 침례를 주는 모든 것을 비판하였던

11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5. 15.

115) 위의 책, IV. 15. 18.

것이다.¹¹⁶⁾

세례 받을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선 그를 회중 앞에 소개하고 온 교회가 증인이 되어 그를 주시하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 신앙고백문을 낭송하며 세례에서 받을 약속을 열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학습 교인에게 세례를 준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와 감사로 그를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할 때 본질적인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 이상한 오염에 과문힘이 없이 그 완전한 광채를 나타낸다. 세례 받는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그느냐 세 번 잠그느냐 한번 만 잠그느냐 또는 물을 부어 뿌리기만 하느냐 하는 이런 세밀한 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나라가 다른 데 따라 교회가 자유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세례를 주다”라는 말은 잠근다는 뜻이고 고대 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한 것은 분명하다. 또 사사로운 개인이 세례를 집례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 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임명하신 사도들에게만 이 일을 명령하셨다. 평신도들이 세례를 주는 일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병자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기 전에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신다고 언급하셨다. 어린아이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창 17:7) 는 이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

또 구원을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이다.¹¹⁷⁾ 여성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구약의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여성에 의한 세례의 선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¹¹⁸⁾

11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5. 16-18.

117) 위의 책, IV. 15. 19-20.

118) 위의 책, IV. 15. 21-22.

2. 유아세례에 대하여

칼뱅은 유아세례를 기독교강요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한 장을 전부 할애하여 유아세례에 대해 서술했다. 이곳은 다른 여러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네바에 있던 재세례파 운동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부터 이해해야 할 줄 안다. 칼뱅은 재세례파로 있다가 돌아온 한 교인의 미망인과 결혼했다. 쓰빙글리와 루터에게 문제가 된 것은 역시 칼뱅에게도 문제가 되었다. 칼뱅은 쓰빙글리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구약에 있는 할례의 신약적인 새로운 형태여서, 언약이라는 점에서는 할례와 같고 외형적인 의식이 서로 다를 뿐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세우신 언약에 참여한다는 약속으로 이를 행하였다.¹¹⁹⁾ 이런 견해 속에서 칼뱅은 세례가 유아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져야 하는 것으로써 그들에게 시행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구약의 초기에 주께서 유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던 때에 할례가 상징하는 모든 축복들에 그들이 참여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칼뱅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동일시하였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표였으며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에 참가하겠다고 고백하는 표였다. 마찬가지로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별되어 그의 백성으로 인정되며 우리 편에서도 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며 할례가 한 일을 세례가 우리 사이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¹²⁰⁾ 여기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무의미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 신비를 설명한다면 세례를 유아들에게 주는 것은 옳은 것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의 의무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 처음에 여호와

119)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132쪽.

12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6. 4.

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할례가 의미하는 모든 것에 그들도 참여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조그마한 유아들에게 행하는 할례가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는 인을 대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이 언약이 지금도 확고부동하게 유효 한다면 구약 시대 유대인의 유아들에게 못지않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¹²¹⁾

유아세례는 우리의 믿음에 특별한 위로를 주며 무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날인과 같이 어린이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며 주께서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의 인애와 은총을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자녀들에게 미치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교회에 바쳐 자비의 상징으로 인침을 받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확신을 얻도록 분발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해야 했다. 왜냐하면 주의 언약이 자녀들의 몸에 새겨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동시에 어린이들도 세례에서 유익을 얻는다. 교회에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얼마만큼은 더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성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열의가 고무된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달을 나이가 되기 전에 엄숙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영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칼뱅은 설명하고 있다. 또 자기 자식에게 언약의 상징으로 표를 하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한 그 위협을 우리는 깊이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에게는 주시겠다고 한 은혜를 거부하시며 취소하시기 때문이다.(창17:14)¹²²⁾

재세례과들은 할례와 세례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둘 다 육을 죽이는 표징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출발해서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며 할례가 옛날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의미를 우리에게서 세례가 나타내 보인다고 추

12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6. 5.

122) 위의 책, IV. 16. 9.

론할 수 있다. 또 그들은 언약이 다르다고 성경을 남용하며 왜곡한다.¹²³⁾ 하지만 할례가 문자 그대로 표징이었다면 세례도 그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례의 실천과 진상은 할례의 진상과 실천이며 둘은 똑같은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다.¹²⁴⁾ 또한 아브라함의 어린이의 신체적 유아는 신약의 영적 유아를 예표 한 것이었고 영적인 유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불멸의 생명에 대해 신생되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 속에 진리가 섬광처럼 빛나고 있는 동안 만약에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결코 약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심각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이 약속을 이어 받게 되며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기 때문이다.¹²⁵⁾

칼뱅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유아들이 설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아들이 회개나 신앙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선포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유아들에게 주실 수가 있으며 그리고 유아들은 장래 있게 될 회개와 신앙을 위하여 세례 받으며 회개와 신앙의 씨가 그들 안에 성령의 은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¹²⁶⁾

초대교회는 어른에게 적용되었던 대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 수 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후에 성례에 참가하였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언약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아들은 상속권에 의해서 모태에서부터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난 유아들은 직접 언약의 상속자로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

12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6. 10.

124) 위의 책, IV. 16. 11.

125) 위의 책, IV. 16. 12.

126) 위의 책, IV. 16. 18-20.

으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¹²⁷⁾

칼뱅은 할례와 세례를 동일시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계약의 표징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가 표징이 되었던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은 그 계약의 자녀들에게 유전적인 권리를 부여하였고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자로 구약의 그것을 더욱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태어남에 의해서 계약 안에 속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태어남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출생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세례를 받음으로 계약 안에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관물이므로 이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칼뱅의 논지의 요점은 계약으로 인하여 믿는자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세례는 교회안의 구성원에 대한 확증이다. 따라서 믿는 자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¹²⁸⁾ 칼뱅은 교회 안에 유아들의 위치를 정립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다. 그리고 구약의 계약사상을 신약의 세례로 연결하였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C. 성만찬이란

1. 성만찬에 대하여

세례와 성만찬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세례가 죄의 용서와 중생, 회개와

12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6. 23-24.

128) 윤철호, “성례전, 세례, 유아세례에 관한 칼빈의 교리,” 『교회와 신학』 제24집 (1992) 253쪽.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 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하고 표시한다면 성만찬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평생토록 양육하는 영적 음식이 된다고 칼뱅은 말하였다. 칼뱅은 성만찬을 “영적인 잔치”라고 하면서 이 잔치에 주어지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중생한 삶을 확증한다면 이 성찬이란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다.¹²⁹⁾ 그러므로 칼뱅은 성찬의 표징을 떡과 포도주로 보았다. 이 표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세례에서 우리를 중생시키신 후에 교회라는 그의 공동체에 접붙이시며 택함을 받은 그의 권속으로 만드신다. 그와 같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심으로써 지혜 있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힘을 회복하며 하늘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이고 기운을 얻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신자가 은밀하게 연합된다는 이 신비는 본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의 적은 능력에 가장 적합한 보이는 표징으로 그 신비의 형상을 보여 주신다. 즉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얻는 것이다.¹³⁰⁾ 이것은 주의 몸이 이미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으며 먹음으로서 그 독특한 희생의 역사를 우리 안에 느끼고 또 우리의 항구적인 음료가 되기 위해서 주의 피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킨 것이다.

칼뱅은 경건한 영혼들은 성례에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12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88쪽.

13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1.

부를 수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가 상속하신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감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생과 죄에서의 구출에 대해서도 확신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억압하던 우리의 죄 짐을 스스로 지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던 것이다.¹³¹⁾

성만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살과 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칼뱅은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서 떡을 받을 때 우리는 곧 비교되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곧 떡이 우리의 신체에 영양과 생명을 주어 신체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혼에 힘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다. 피의 상징으로서 포도주가 제시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포도주가 신체에 주는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비슷한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³²⁾

둘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그의 거처로 삼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 자체를 소생시키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칼뱅은 우리와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들었을지라도 우리의 안과 밖에 죽음만이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확신과 안심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생명의 그 원천이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멀리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동참하리란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는 또 그가 거처로 삼으신 우리의 육에 생명을 주시며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영생의 양식을 얻게 하신다고 하였다.¹³³⁾

셋째로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잔치 상에

13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2.

132) 위의 책, IV. 17. 3.

133) 위의 책, IV. 17. 8.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만찬이 상징하는 실체를 제공하시며 보여주신다는 것이다. 떡을 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러나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진실로 자기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몸의 상징을 받는 때에 그 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확신해야 한다. 여기서 칼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명을 우리의 뼈와 골수에까지 침투시키듯이 우리 속에 그의 생명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성찬에서도 증거하시고 인을 치신다. 그리고 영적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이 의미하는 실재를 제시하시며 보여 주신다. 또 주께서 떡을 떼는 것으로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참으로 표현하신다면 그가 참으로 그의 몸을 제시하며 보이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다. 경건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주께서 정하신 상징을 볼 때마다 거기에 상징된 본체가 있다고 생각하며 확신해야 한다. 주께서 우리 손에 그의 몸의 상징을 쥐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¹³⁴⁾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성례의 주요한 기능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성례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의 살은 양식이요 그의 피는 음료라고 한 약속을 인치며 확증하는 것이다. 성례에서는 더 이상의 생각이 없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며(요 6:55),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요 6:54) 선언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¹³⁵⁾ 둘째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되는 산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죽을 성질을 공유하게 되심으로써 그의 신적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때 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저주를 자기가 받

13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10.

135) 위의 책, IV. 17. 4.

으시고 자신의 축복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실 때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삼켜 없애실 때에(벧전 3:22; 고전 15:54 참조)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가 입으셨던 우리의 이 썩을 육을 영광과 썩지 않음으로 입히실 때에(고전 15:53~54 참조) 그는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이다.¹³⁶⁾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믿음으로 먹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살을 믿음에 의해 우리의 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살을 먹으며 이렇게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한다. 더 분명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먹음이 곧 믿음 이요 나에게에는 먹음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다.”¹³⁷⁾ 넷째는 주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요 6:51)이라고 부르신 의도는 우리의 구원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참되게 먹고 마심으로 마치 우리가 양식으로 먹은 떡이 우리 몸에 힘을 주는 것처럼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구원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의존할 뿐 아니라 떡을 먹으면 몸에 생기를 주는 것과 같이 참으로 그를 먹음으로써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옮겨져서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다.¹³⁸⁾

성례의 의미는 약속들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의 본체는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 및 부활이며 성례가 의미하는 것과 그것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효력 또는 결과로는 구속, 의, 성화, 영생 그리고 여타의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다. 칼뱅은 신자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과 의를 가지며 그의 죽음에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 은혜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신비에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13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4.

137) 위의 책, IV. 17. 5.

138) 위의 책, IV. 17. 5.

제시된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우리에게 의를 얻어 주시려고 모든 순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의해서 제시된다. 무슨 까닭일까? 첫째는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며 둘째는 그의 본체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능력도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다.¹³⁹⁾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례라는 표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한다. 일단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받아들인 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양육한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 준 표시가 바로 성찬이다. 첫째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동시에 보증이다.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분은 성령이다. 둘째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과 동시에 보증이다.¹⁴⁰⁾

그리고 칼뱅은 로마 교황청의 재주꾼들이 조작한 임재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은 사제의 봉헌을 통해서 전에는 떡이었던 것이 그리스도로 변화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떡이지만 그 아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고 하였다. 롬바르트의 말에 의하면 본질상으로는 가견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봉헌기도 이후에는 떡의 형태로 감추어 덮여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봉헌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즉 몸이 떡으로부터 적절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떡의 형체 아래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몸의 본체를 멸절시키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칼뱅은 떡의 형상은 우리의 눈이 살을 볼 수 없게 하는 가면에 불과하며 그들이 이런 말로 어떤 함정을 파려고 하려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과거 수백 년 동안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까지도 얼마나 큰 미신에 붙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과 지금도 교황제도하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미신에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13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11.

140)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31-32쪽

교제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정한 믿음인데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리스도의 물질적인 임재를 조작하고 그런 임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¹⁴¹⁾

칼뱅은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인간의 몸에 공통된 일반적인 특색들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심판 날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 온전한 그리스도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만찬에도 온전한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지만 그의 영육이 전체적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심판 날에 나타나시기까지는 육체로는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인간의 몸에 공통된 일반적인 특색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⁴²⁾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그 전체가 어디든지 계시므로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성찬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즉 그리스도 전체가 계시지만 완전히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심판하러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¹⁴³⁾

계속해서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눅 22:19)고 말씀하시던 때에 그의 손에는 떡이 쥐어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자기의 몸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떡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떡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가 부활하신 때로부터 유한하며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간직되어 머무신 것이다. 성령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승천은 대조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의 살과 피를 취하여 먹고 마시라고 명하신다. 이로 보건대 그 자신이 진실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

14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13.

142) 위의 책, IV. 17. 12.

143) 위의 책, IV. 17. 30.

에게 주시며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로 받는 것이 분명하다. 칼뱅은 거룩한 만찬에서 그는 떡과 포도주라 상징하는 그의 몸과 피를 받아먹으며 마시라고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나 참으로 그가 친히 주시며 또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⁴⁴⁾

주의 성만찬의 첫 번째 용도는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도와 하늘로 높이 올리워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이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늘로 높이 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약한 마음을 도와 영적 신비들의 높은 곳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성찬이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¹⁴⁵⁾ 두 번째 용도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언하고(고전 11:26) 세 “주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이것을 행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가르치셨다.(눅 22:19) 바울은 이 말씀을 ”주의 죽으심을.....전하는 것이니라”고 해석하였다.(고전 11:26) 즉 생명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존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도 주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권고하라는 말이다. 여기서도 성찬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났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다.”¹⁴⁶⁾ 세 번째 용도는 우리의 삶에 순결과 거룩 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일치 를 고취시키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권장하며 고취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주께서는 성찬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며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¹⁴⁷⁾

성만찬의 중심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14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32.

145) 위의 책, IV. 17. 36.

146) 위의 책, IV. 17. 37.

147) 위의 책, IV. 17. 38.

“생명의 말씀”(요일 1:1)이시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주신다”(요 1:1)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요 1:4) 이 분에게서 생명이 온갖 피조물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이 만져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칼빈은 요한복음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를 인용한다. 즉 창조론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오 구원론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이다. 칼뱅은 성령께서 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성만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만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과 연결된다. 칼뱅은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된 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하신다. 특히 초월적 차원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체와의 연결은 결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해석학적 이론이나 역사적 연속성이나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잘못된 신비주의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 만이 성육신하신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귄이 일어난다.¹⁴⁸⁾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와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닿음으로 우리의 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령의 비밀스러운 능력은 우리의 느낌과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이야 말로 공간적으로 떨어진 것들을 연합시킨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거룩하게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되 뼈와 골수에 와 닿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성만찬에서 증거하고 날인하신다. 그런데 이는 헛되고 공허한 표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효과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¹⁴⁹⁾

칼뱅은 성찬의 신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 자체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14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91-92쪽.

14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10.

똑같이 영적인 것이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것은 맛을 모르는 사람이 포도주를 맛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믿음이 없이는 씨가 불 속에서도 싹이 틀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합당치 못한 말이요 비가 굳은 바위 위에 떨어지더라도 돌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과 힘이 없는 상태의 그리스도의 몸이 불신자에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부당하게 쪼개는 것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의 보증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도리어 짓밟음으로써 이 신비를 모독하게 된다.¹⁵⁰⁾ 그래서 성만찬의 불신자 참가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칼뱅에게 있어서 성만찬에서 배척하는 것들로써는 물질 숭배를 말하였다. 이들은 몸에는 영혼과 신성이 함께 있어 몸에서 분리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따로 따로 말씀하셨다. 사도들은 엎드려 숭배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받아들였다.¹⁵¹⁾ 성찬물 숭배는 미신이며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¹⁵²⁾ 또 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으로 성찬의 제정 정신과는 반대로 전혀 이기적인 의식을 만들어 낸 것을 배격하였다. 성찬은 우리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미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¹⁵³⁾

또한 성만찬에 중요한 점들로써는 첫째, 성찬에는 서로 사랑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권장하며 고취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주께서는 성찬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와 완전히

15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33.

151) 위의 책, IV. 17. 35.

152) 위의 책, IV. 17. 36.

153) 위의 책, IV. 17. 37.

하나가 되시며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몸이기에 반드시 형제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형제들은 우리의 지체이므로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그들의 몸을 돌보아야 한다.¹⁵⁴⁾ 둘째, 말씀이 없으면 성찬은 바르게 집행될 수 없다.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은혜에는 모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거나 고백을 연습하거나 의무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설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 독재 하에서 일어나는 것같이 성찬을 말없이 행사로 만드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짓이라고 칼뱅은 말한다.¹⁵⁵⁾ 셋째, 주의 만찬의 거룩한 떡은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귀한 진미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맛 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이심을 느끼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며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권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빵을 받아도 믿음이 영양과 힘을 얻지 못하며 감사할 생각이나 사랑할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무서운 독약이 된다고 하였다.¹⁵⁶⁾ 넷째, 성찬은 완전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곧 약한 사람들을 각성시키며 고무하고 자극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었다.¹⁵⁷⁾ 다섯째, 성찬은 자주 집행하라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주 성찬을 받도록 제정하셨고 자극을 받으므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을 자주 회상하고 이런 회상에 의해서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며 또 성찬을 자주 받으므로써 상호간의 사랑을 증진하고 서로 사랑을 증명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단결하는데서 사랑의 유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¹⁵⁸⁾

15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38.

155) 위의 책, IV. 17. 39.

156) 위의 책, IV. 17. 40.

157) 위의 책, IV. 17. 42.

그러면서 성만찬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으로는 첫째, 일년에 한번의 성찬은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귀가 만든 것이다. 주의 식탁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진설해서 성찬이 선언하는 약속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¹⁵⁹⁾ 둘째,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을 반대하였다. 주께서는 떡을 보이시며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보이시며 자기의 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떡과 잔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절반을 빼앗긴 것이라고 하였다.¹⁶⁰⁾ 셋째, 성만찬을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제사라고 믿는 것은 조금도 지지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개입으로 인해 우리가 성부의 은혜 안에 다시 자리 잡게 되는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유일회적 성격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명예를 박탈하는 것이며 또한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뱅은 화체설을 배격한다. 왜냐하면 성례전 즉 표지라는 생각 자체는 물질적인 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 다른 어떤 본체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¹⁶¹⁾

2. 칼뱅의 성만찬 이론의 특징

칼뱅의 성만찬의 교리형성에 대해서 윤철호 박사는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리 우며 이것은 또한 루터의 공재설이나 쾰링의 기념설과도 구별되는 것으로서 성만찬 교리를 기독교론이 범주 안에서 해결해보려는 다른 입장들을 넘어서서 삼위일체론적인 범주 안

15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17. 44.

159) 위의 책, IV. 17. 46.

160) 위의 책, IV. 17. 47.

161) Jean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40-41쪽.

에서 성령론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칼뱅은 누구보다도 성만찬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던 신학자로 그리고 그의 사상은 개혁신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성만찬의 성례전적 신앙과 삶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⁶²⁾

박경수 박사의 글을 빌려 칼뱅의 성만찬 이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칼뱅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칼뱅은 실존적인 문제인 “어떻게 내가 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복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초점을 옮겨 놓은 개혁자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는”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 바로 “나를 위한”(pro me) 그리고 “우리를 위한”(pro nobis)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단임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둘째, 칼뱅의 성만찬 이론은 성령의 위치를 찾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복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담으로 칼뱅은 “성령을 통하여” 이었다. 성령을 통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참여하는데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제 성령은 성만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셋째, 칼뱅은 믿음을 강조하였다. 성만찬은 그 자체가 은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의 효력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그는 딱딱한 바위 위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빵과 포도주가 아무런 의미와 효력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는 믿음으로 참여해야지 타성에 젖어 아무런 감동도 없이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무익한 시간낭비가 될 것이다.¹⁶³⁾ 이처럼 칼뱅을 통해 성만찬은 새로운 해석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162) 윤철호, “칼빈의 성만찬 교리,” 『교회와 교육』 제24집 (1992, 11): 31쪽

163) 박경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만찬: 칼뱅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47-9쪽.

V. 결론

A. 요약

칼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경건과 신뢰와 경외를 통해 그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간 자신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생각하였다.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속성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구약에서 나타난 천사를 신약의 아들로 보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다. 신구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며 그 말씀은 그 실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말씀, 즉 설교는 교회를 근거로 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이다. 이 설교는 칼뱅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통한 설교라는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설교말씀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설교는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 칼뱅은 성도들은 설교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받아 은혜와 신앙으로 구원 얻는 신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칼뱅은 철저하게 성경의 증거위에 그의 신학을 세운 사람이었다. 설교말씀을 듣고 구원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성령을 통해서 말해졌던 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

으므로 그 권위가 인간적인 것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가 파악되려면 성령의 내적증거가 있어야 한다.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와 닿으려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도장이 찍혀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능력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그래서 칼뱅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은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런 분이셔야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깊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며 이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다른들 없이 이해될 수 없는 삼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칼뱅은 우리가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나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약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른 이해를 회복시켜 주시며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는 인간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율법의 전체 목적을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데는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중심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칼뱅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칼뱅은 신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전

하는 것이며 구약은 성육신하실 분을 선포하기에 신구약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하기를 신약은 채색된 그림이요 구약은 암영이었던 것이다. 칼뱅은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바로 구약 성서에 약속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었다.

칼뱅에게 말씀 선포는 사람을 도구로 삼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수단이며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설교자의 말은 성령의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설교가 효력을 발휘 하였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뱅은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설교자의 자질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뱅은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성경을 충실하게 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설교할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였고 충실하게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다. 또한 칼뱅은 성령의 신학자였다. 모든 기독교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와 간섭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특히 그는 성령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끈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제외한 설교는 사람의 말잔치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다. 성령님의 능력만이 설교로 하여금 효과를 나타나게 하신다고 믿었다. 칼뱅은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한다고 확신하였다.¹⁶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설교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선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칼뱅에게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 수단이며 복음 선포와 관련이 있다. 성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로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

164) 김재성,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적 기초,” 『그 말씀』 제63호 (1997. 10): 69쪽.

속하신 것을 떠나서는 성례가 있을 수 없다.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은 성례에 표징을 설명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세례가 성별되고 깨끗케 하는 힘이 세례에 있게 되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에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자가 필요하고 성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분명한 음성으로 선포하는 그 약속이 신자들의 손을 잡고 표징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였다. 이 말은 말씀이 얼마만큼 성례전 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분명한 것은 성례전은 복음의 바탕에 이루어져야 했다.

칼뱅은 성례가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내적 교사인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고 하였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성례가 들어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성령과 성례를 구별해서 역사하는 힘은 성령에 있고 성례는 그 임무만을 감당한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은 단순히 귀를 때릴 뿐이요 성례전도 다만 눈앞에 전시될 뿐, 마음에 전혀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성례전의 효력은 성령의 힘에 달려 있기에 성경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성례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직 성례전을 통하여 혹은 성례전과 함께 은혜가 오는 것이다.

성례전은 하나님이 주신 의식이므로 교회 안에서 항상 행해야 한다. 칼뱅은 고대의 성례전이나 현대의 성례전 모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거나 또는 형상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였다. 칼뱅은 세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예식으로 죄를 씻는 표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표하고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하였다.

칼뱅에게 유아세례는 중요한 논점이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동일하게 보았고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다르지만 새로운 형태였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옳은 것이며 하나의 의무라고 하였다. 몸에 하나님의 표징이 주어진 것처럼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통해 더욱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유아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칼뱅은 성만찬을 영적 잔치라고 표현하면서 이 잔치에서 주어지는 떡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예식으로 보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일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만찬을 통해 경건한 영혼들은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칼뱅은 신자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과 의를 가지며 그의 죽음에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성만찬에서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의 말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주신 분으로 고백하였고 이 고백은 자주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B. 제언

필자는 먼저 칼뱅의 말씀이해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의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필자 자신과 한국교회의 설교를 생각해 본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 한국사회는 과거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영토의 확장과 성장만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한국교회를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의식 없는 신학적 성찰이 결여된 설

교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설교에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깨우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한국교회장단이 잘못됨으로 그 힘을 잃었고 낯 나간 사람이 길을 잃듯 오늘의 교회는 역사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학이 없다는 점이다. 신학이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체계화시킨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학의 범위는 성경 안에만 머물지 않고 자연과학과 역사학 그리고 윤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신학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다. 설교는 항상 성경을 그 텍스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신학가운데서도 특히 성서신학의 부재가 문제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데 기본 텍스트인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역동적인 역사이해와 그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과 통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¹⁶⁵⁾ 그래서 설교자들은 칼뱅처럼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과 언어지식 신학적인 기반이 깊어야 바른 성경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를 잡고 넘어간다면 한국교회는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교회 중심의 교회론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성장을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이해하는 교회론은 이미 가톨릭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종교개혁 이후에도 별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보수신학을 바탕으로 한 한국교회의 교회론도 철저하게 교회중심의 교회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회성장론은 개인주의 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기복신앙의 만연을 가져왔으며 교회의 대형화 추세는 농촌과 공단지역 교회의 소외를 심화시켜 교회의 계층화를 자극하였다.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하며 교회목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힘쓰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165) 유경재 외 8인, 『한국교회 16인의 설교를 말한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3쪽.

설교자의 또 다른 문제는 역사의식의 결여이다. 설교가 예언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격변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한국교회 강단은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큰 이슈들에 대하여 그릇된 판단을 힘으로써 성도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결국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정치적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미디어의 정보를 따라 판단을 내린다. 설교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말씀으로 조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개인적인 신앙생활 문제에 집중한다. 실상 성도들은 이미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여 목사의 설교를 통해 자기 성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대 주류 세력들에 대하여 비판적이던 예언자들 역시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언자들과는 달리 오늘의 목회자들은 현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칼뱅을 생각해 본다. 수많은 목회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강해하며 설교하였던 그였기에 많은 고뇌와 갈등도 있었으리라 본다. 그만큼 설교자는 외롭다. 그렇지만 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설교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칼뱅처럼 설교자의 자세를 갖기를 제안해 본다.

성례전 특히 성만찬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살려 교회 내에 올바른 정신과 신학적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1885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시작된 한국 개신교는 그 이후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중 특히 장로교는 가장 큰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장로교의 예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빠져 있으니 바로 이것이 성만찬 예전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의 영향이 그 하나이다. 한국 초대교회는 입국한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그들의 예배 형태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초기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중

요한 점은 가톨릭과는 달리 예배 의식과 교리보다는 이들은 주로 학교교육과 성서번역 특히 복음전파에 있었던 것이다. 초기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의 중심점은 바로 성서 그 자체에 있었다. 성서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와 함께 행하여져야 할 성례전이 극히 소홀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진다.¹⁶⁶⁾

이들의 배경에는 청교도적 예배가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이주한 이들의 예배는 유럽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배에 일정한 형식이 없었고 예배의식을 거행할 교역자가 부족하여 의식은 자주 있지 못했다.¹⁶⁷⁾

성만찬은 초대교회로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는 이 성만찬은 항상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금 확인하였던 것이다. 성만찬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세례식 후 곧바로 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는 성만찬이야말로 깊은 감격과 생명력을 지닌 예전으로 예배의 순서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당시 예전의 모든 주제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만찬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었으며 이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의 대면이라는 생동적인 신앙을 주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전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또한 그의 원하시는 대로 소생한 성도들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사건을 이 예전 안에서 이루게 됨으로서 이 성례전을 가리켜 중심적 행위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오늘의 한국교회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 속에서 성만찬 예전이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가 행하였던, 또한 경험하였던

166) 김충환, “칼빈과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의 성만찬 이해와 실제,” 『신학이해』 제15집 (1997): 307쪽.

167) 위의 책, 309쪽.

그러한 감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질문하여 본다면 그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 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일년에 한 두 번 혹은 3-4회에 달하는 횟수에서 그리하고 또한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러하다.

필자가 부목사로 있는 목천교회(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소재)는 세례식은 연 4회 실시(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일 예배시)에, 유아세례는 연 2회(어린이 주일, 성탄절 전 주일 예배시)에, 성찬식은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각 첫 주일 예배시)에 각각 행하고 있으며 기타, 사역자 수련회(1월), 고난일 예배시(성금요일)에 성찬식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면 다른 교회보다 성례식이 많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례식에 참여케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다. 세례식 한 주간 전에 입교문답을 끝낸 후 한 주간 동안 한 끼 음식과 함께 각자 간증문을 써 오게 한다. 그리고 세례식 때에 이 간증문을 직접 자신이 읽도록 한다. 듣는 자나 간증하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 사람을 위해 각 목장(구역)이나 각 부서(교육부서)에서는 꽃다발과 기억에 남으리 만큼의 선물을 준다. 그리고 집례 목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한 후 가족과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다. 필자의 교회에서는 무슨 결혼식 행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환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성찬식은 한 주간 전에 교회 광고를 통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도한다. 성찬준비는 교역자들이 준비를 한다.

우리 교회가 갖는 성찬 예전은 실제 현장에 있어서는 나를 기념하라는 언어적 의미 외에는 그 이상의 신학적 의미 부여에 무관심한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성찬 예전이 개신교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로 형식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귀중한 성례전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전 가운데서 경험하고 깊이 깨달은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뱅이 교회의 두 표지라고 했던 말씀과

성례전은 올바른 신학과 성령의 주관 하에 바르게 선포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앞으로 나의 사역의 현장을 고민해 본다. 그러면서 교회관을 칼뱅의 교회론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립해 본다. 교회부흥을 좇아 해매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의 두 표지인 말씀과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바르게 선포하고 시행하는 그런 목회를 꿈꾼다. 말씀에는 성서신학을 바탕으로 한 바른 성경이해와 당대의 시대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분석을 가지고 예리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과 언어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기복신앙을 배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기독교적인 안목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눈을 돌리는 복지 우선의 목회관이 필요하다.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는 말이다. 또한 칼뱅이 말씀이나 성례전에서 항상 강조한 것처럼 성령의 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와 목회를 구상해 본다. 특히 성례전을 통해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 지며 성령을 경험하도록 교회 안에 성례 신앙을 중요하게 교육시킨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연합은 성례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표지가 바르게 행해질 때 교회는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되어갈 것이다.

참고도서

A. 동양서적

- 박세환. 『존 칼빈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1.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_____.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05.
- 유경재 외8인. 『한국교회 16인의 설교를 말한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이종성. 『칼빈, 그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 정장복 외.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B. 번역서적

- Cadier, Jean.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Küng, Hans.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출판
사, 1978.

- Leith, John 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박종숙 역. 『종교개혁사상입문』.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McKim, Donald K. 편저,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McNeill, John Thomas.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정성구, 양낙홍 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 Moltmann, Jürge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외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 Neuser, Wilhelm H. et al. *Preacher Calvin*. 김성욱 역. 『설교자 칼빈』. 서울: 웨스터민스터 출판부, 2004.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73.
- Par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 신학의 입문』.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Piper, John. *The Legacy of Sovereign Joy*. 마영래 역.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 서울: 좋은 씨앗, 2002.
- Stauffer, Richard. *Calvin et sermon*. 박건택 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90.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 of the Word and Sacrament*. 정장복 역.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론』. 서울: 풍만 출판사, 1985.

Wendel, François.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C. 정기간행물 및 논문

- 김의환. “칼빈의 성경관.” 『신학지남』 제39권 1집 (1971. 3): 20-7.
- 김재성.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적 기초.” 『그 말씀』 제63호 (1997. 10): 66-75.
- 김충환. “칼빈과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의 성만찬 이해와 실제.” 『신학이해』 제15집 (1997): 307-33.
- 박경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만찬: 칼뱅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교회와 신학』 제62호 (2005): 44-52.
-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신학지남』 제46권 1집 (1979, 3): 39-73
- 윤철호. “성례전, 세례, 유아세례에 관한 칼빈의 교리.” 『교회와 신학』 제24집 (1992): 253-74.
- _____. “칼빈의 성만찬 교리.” 『교회와 교육』 제24집 (1992, 11): 31-7.
- 이성룡.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복음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93.
- 이양호. “칼빈의 목회관-그 특징과 역사적 영향.” 『신학논단』 제22집 (1994): 131-46.
- _____. “설교자 칼빈: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한 설교자, 존 칼빈.” 『그 말씀』 제63호 (1997, 10): 34-43.
- _____.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85.
- 정성구.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설교패턴과 특징들.” 『그 말씀』 제63호 (1997. 10): 76-95.
- 현요한. “칼뱅의 교회론.”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6.